

아파트 전세가율 남구 91.7% '사상 최고'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율〉

광주 5월 평균 76%...3개월간 오름세 매매가 서구 1억8752만원 가장 높아

광주 남구의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율)이 1년 새 사상 최고치인 91.7%까지 치솟았다. 아파트가 격변을 나타내면서 전세가율이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광주지역의 집값 상승도 잠정되고 있다.

29일 광주시방산신문의 부동산 시세추이(계제가 기준) 분석 자료에 따르면 5월 광주 아파트 전세가율은 76.2%로 지난 2월 73.5%, 3월 73.7%, 4

월 75.2%로 점진적인 오름세를 띄었다. 지역별로는 남구가 91.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서구 77.4%, 광산구 76.5%, 북구 72%, 동구 64.1% 순으로 뒤를 이었다.

사량방산문 관계자는 "봄 성수기 이후 이달 들어 아파트 가격이 주춤한 현상을 보이는데 이는 상승폭이 높았던 예년의 기저효과 때문으로 분석된다"며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

시스템보다 다소 높은 수치가 나온 것은 신문에 게재되는 실제 아파트가 격을 표본으로 조사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남구의 경우, 최근 주택거래가 침체가 계속되면서 수요가 낮은 전용면적 85㎡(26평) 이상 중대형 아파트의 거래 부진이 따른 매매가 하락이 전세가율 상승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명문 학군이 몰려있는 지역 특성상 2~4월 새 학기 시즌 전후로 아파트 거래가 성수기를 맞으면서 전세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전세가율이 가장 낮게 나타난 동구의 경우 지역 내에서 아파트

보급률이 가장 낮고 상당수 아파트의 건축물 연한이 노후해 전세 투자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면서 아파트 거래가 약세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지역별 아파트 매매시세(평균) 조사 결과 서구가 1억8752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남구 1억8586만원, 동구 1억8401만원, 광산구 1억5816만원, 북구 1억5328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광주 지역 평균은 1억7031만 원이다.

매매시세 변동률(전월 대비)은 동구가 2.03%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월남지구 등 대단위 택지개발에 따른 인구유입과 재개발로 인한 구도

심활성화 등의 기대심리가 시세 흐름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서구의 경우 매매시세 변동률은 -4%대로 크게 하락했다. 서구는 지난해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 선수촌 건립 등 호재에 따른 아파트 거래가 예년에 비해 활발히 이뤄졌으나 올해 들어 파급효과가 계속되지 못하면서 거래가 주춤한 상황이다.

사량방산문 관계자는 "매물 거래 시 신규 입주물량 시장 유입과 노후 아파트에 대한 가격하락 등을 실거래가와 비교해보고 건축 연도를 꼼꼼히 살피는 등 선택에 신중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29일 윤용로 외환은행장(사진 앞줄 중앙)과 지역 중소·중견기업 경영인들이 좌담회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외환은행 제공>

윤용로 외환은행장 광주 찾아 중소·중견기업 지원방안 모색

윤용로 외환은행 행장이 29일 '현장 중심 경영을 통한 중소·중견기업 지원 확대' 방안을 일환으로 광주를 찾아 중소·중견기업 경영인의 애로사항을 듣고 실질적 지원방안에 대해 밝혔다.

호남지역 중소·중견기업 CEO 초청 좌담회 형식으로 열린 이날 방문은 지난해 7월 호남지역 고객 초청 간담회 이후 두번째로 광주 대우에이텍 등 지역 10여곳의 중소·중견기업 경영인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또 이 자리에서는 강신원 외환은행 중소기업글로벌지원센터장이 최근 글로벌 환율 변동성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에 담긴 '환리스크 관리 전략'에 대해 강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정진모(대우에이텍 대표)는 "한 기업을 경영하면서 기업이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금융을 포함한 거래처와의 파트너십이 실질함을 깨닫게 된다"며 "오랜기간 외국환, 수출 및 기업금융의 동반자적 역할을 담당해온 외환은행이 앞으로도 기업이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든든한 우산이 되어 줄 수 있는 금융 오아시스 역할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윤용로 행장은 "고객 섬기는 일을 으뜸으로 삼는 외환은행의 변화하는 모습을 기대해 달라"며 "힘들거나 어려워도 고객의 동반자로 동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답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코스피 2000선 돌파 29일 코스피가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두 달 만에 2000선을 돌파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4.98포인트(0.75%) 오른 2,001.20으로 장을 마쳤다. /연필뉴스

경기도 이어 전국 2위...전남에 외국인 땅 많은 이유 여수·광양 등 외국법인 소유지 많아 해남 해외교포 증여 받은 토지 몰려

올해 1분기 외국인의 국내 토지 소유면적이 전분기 대비 소폭 증가했다. 전남은 경기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외국인 소유 토지가 많았다.

국토교통부는 29일 1분기 외국인의 국내 토지 소유면적은 총 2억 2670만㎡로 전 국토면적의 0.2%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분기 외국인들이 264만㎡를 취득하고 215만㎡를 처분하면서 지난해 말 대비 49만㎡(0.21%)가 증가한 것이다. 금액으로는 공식지가 기준 32조4081억 원으로 지난해 말에 비해 549억 원(0.17%) 늘었다.

전남은 전분기보다 6만㎡가 늘어난 3815만㎡로, 전국 외국인 소유토지의 16.8%를 차지했으며 경기도(3879만㎡·17.1%)에 이어 전국 2위 규모를 차지했다. 전남지역에 외국인 소유 토지가 많은 이유는 여수와 광양의 산업단지에 외국투자법인과 순수외국인법인 등이 많이 때문이다. 산단 사업장은 필지당 규모가 커 외국인 소유 토지 면적을 넓히는 데 기여했다. 전남에선 코리아카본, 지에스칼텍스, 금호플라스틱 등 합자법인이 많은 여수가 가장 넓은 면적의 외국인 소유 토지를 보유하고, 이어서 광양과 해남, 무안, 순천 순이었다.

해남은 법인이 아닌 해외 교포가 조상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600필지가 몰려 있었다.

전국 외국인 토지 소유 현황을 보면 외국국적 교포가 가장 많은 1억2887만㎡(56.9%)를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고, 합자법인 7231만㎡(31.9%), 순수외국법인 1568만㎡(6.9%), 순수외국인이 932만㎡(4.1%)를 소유했다. 국적별로는 미국이 1억2216만㎡(53.9%)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유럽 2372만㎡(10.5%), 일본 1916만㎡(8.4%), 중국 570만㎡(2.5%) 등이 뒤를 이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세계최대 컨테이너선 광양항 기항 추진 여수광양항만공사유치 나서

광양항에 세계 최대 규모 컨테이너선 기항이 추진된다.

29일 여수광양항만공사에 따르면 1만8000TEU를 적재할 수 있는 세계 최대 컨테이너 선박 '트리플-E'의 광양항 기항을 성사시키기 위해 공사와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광양시, 여수시 도시사회 등 4개 기관 22명으로 합동 태스크포스를 결성했다.

덴마크 국적 머스크 선사 소속 16만 5000t급 '트리플-E'는 길이 400m, 너비 59m로 컨테이너선으로 세계 최대다. 현재 국내 조선소에서 같은 급 컨테이너선이 총 10척이 건조되고 있다.

광양항은 설계상 1만2000TEU급 컨테이너선까지 기항할 수 있으나 2011년부터 1만5500TEU급 컨테이너선이 입항하고 있다.

트리플-E는 설계기준을 크게 초과, 선사 측이 기항 조건으로 통항 안전성을 요구해 태스크포스는 관련 용역 추진에 들어갔다. 태스크포스는 용역 추진과 함께 4개 기관별 역할을 분담, 여수항만청은 안전통항을 위한 통항우선권 부여 등 관제 지원, 항로 등 수역시설 정비제공을 하기로 했다.

/광양=백영진기자 pyj4079@

나주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경제발전 토론회

한전은 29일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로 이전한 뒤 사회적 기업 및 귀농 교육센터 설립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와 전남도,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이하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관계자 30여 명은 이날 상호 협력을 통한 지역경제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광주테크노파크에서 간담회를 갖고, 각 기관의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설명한 뒤 향후 공동

협력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방안을 토론했다. 한국전력공사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이전이 완료되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 등 지역경제 살리기에 관심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전력 거래와 관련된 광주·전남지역 대학과의 공동인재육성 및 공동 연구개발 사업을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광주·전남중기청-전남경찰청 기술 유출 대응 협약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과 전남지방경찰청이 29일 지능화·다양화하는 산업기술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중소기업 산업기술 유출 대응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광주·전남중기청과 전남경찰청은 이번 MOU를 통해 산업기술 유출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협조 관계를 구축해 효과적 대응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의준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기술보안 시스템 구축 미비와 관리자·종업원의 보안 의식 부재 때문에 산업기술 유출이 증가하고 있다"며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산업기술 유출의 예방과 대응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

▲ 코스피지수 2001.20(+14.98) ▼ 코스닥지수 585.69(-0.07) ▲ 금리(국고채 3년) 2.75%(+0.11) ▲ 원·달러 환율 1132.90원(+6.00)

눈이 피로하면 온몸이 피로하다

안구건조, 눈피로, 만성피로 - 3단계 치료로 해결

안구건조·눈피로 눈이 마르고 건조하며 침침하고 쏟아질 것처럼 피로하다

최근 직장인 및 수험생, TV를 자주 보는 어린이도 호소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조금만 책을 들여다보거나 컴퓨터 모니터를 보자마자 눈이 쏟아질 것처럼 피로하고 머리까지 무거워지는 증상을 보인다. 이런 증상을 '안구건조(眼精乾燥)' 또는 '안정피로(眼精疲勞)'라고 한다. 눈피로는 보통 사람이라면 별로 피곤하지 않을 정도의 상황에서도 쉽게 눈에 피로를 느끼고, 두통이나 시력장애, 복시(複視-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현상)를 일으키고, 심할 때는 구보까지도 일으키는 질환이다. 물론 난시, 원시, 사시의 소유자는 더욱 빨리 피로증세를 보인다. 정상적인 시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안정피로 증상을 호소 정상적인 시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안정피로 증상을 호소 한다면 원인은 간에서 찾아야 한다.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간 기능이 울체되고 시간이 지나 간화(肝火) 혹은 간열(肝熱)이 쌓이면 그 열이 머리와 눈으로 표출된다.

이 때 간의 화기(火氣)가 인체의 상부인 머리와 눈에 영향을 미쳐 눈이 마르고 건조해지며, 침침해지고 피로해지며 심하면 '눈에서 물을 쏟는 것 같은'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또한 눈을 뜨기가 힘들어 눈을 감고자 하고 상대방 눈을 쳐다 보기가 힘들며 상대방도 내 눈을 쳐다 보면 눈이 피로해진다거나 눈에 이물감이 있는 것 같은 말기상태에 가까워지면 눈에 통증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이 때 피로하면 온몸이 피로하다. 피로한 피로증세는 몸이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 내보내는 건강의 적신호이기 때문이다. 이런 전신피로, 만성피로 증세는 한방치료가 제격이다. 단지 증상을 잡는 것이 아니라 몸을 보(補)해주는 한약 자체의 특성으로 피로의 원인은 물론 몸의 건강 자체를 살려주기 때문이다. 인다라한의원은 이런 전신피로의 원인을 소화기의 약화와 기혈의 부족과 딱딱, 그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 본다.

침침해지고 일이 자주 마른다. 업무능력이 크게 떨어진다. 폭 자고 쉬기 등 나뉠대로의 피로회복 대책으로 피로를 풀려고 할 뿐 피로를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치료해야 할 질환이라 생각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피로야말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질환이다.

인다라한의원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 60-24 광주은행 6층
www.indara.co.kr (광천사거리 광천파출소 맞은편)
광주점 062-368-5075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 120106-종-9819호 (광교)

광주·전남 프리모날 가발

23년간 약 1만명 시술경력 가발명가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신제품 기적궁합가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원천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상가2층
대표전화: 0621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大山 프리모날 가발